

# 미래낙농 이끌 젊은 낙농인들의 화합 청년이 낙농의 미래다!

2014년도 청년분과위원회 워크숍 (7.3~4) 개최



협회 청년분과위원회는 7월 3일에서 4일까지 율리휴양촌(충북 증평군 소재)에서 전국의 청년낙농인들을 비롯, 충남북 임원과 도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도 청년분과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도 사뭇 진지한 토론·토의가 이뤄져 참가자 모

두에게 의미있는 자리가 되었다.

이날 워크숍에 참석한 손정렬 회장은 “후계낙농인들이 낙농산업의 발전적 논의를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편안한 자리를 자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이며, 선후배간 이끌고 밀어주는 훈훈함 속에 분과위 활성화도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손정렬 협회장은 청년낙농인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목장경영을 위해 협회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에 묶은 실로 바느질 못해 더 이상 땀질식 처방 정책은 금물!!

금번 워크숍의 의미있는 일정은 낙농정책연구소 조석진 소장의 낙농특강에서 시작되었다. 「국제화에 따른 낙농산업에의 영향과 대응방안」이란 제목으로 이뤄진 강의에서 조석진 소장은 그간 연이은 수입 개방과 급격한 대외환경 변화 속에서도 여전히 낙농산업의 안정을 위한 보완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을 강하게 지적하는 한편, 미국 및 일본의 용도별 유대체계, 일원집유 다원판매를 통한 전국단위 쿼터제 등 낙농선진국의 사례를 들며 각계가 모색해야 할 방향을 시사하였다.



조석진 낙농정책연구소장은 국제화에 따른 낙농산업의 영향과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낙농특강을 펼치면서 전국단위 쿼터제 등 항구적 대책마련과 미래 낙농산업을 이끌 후계낙농인들을 위한 실질적 대책이 세워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농가 개인으로서는 끊임없는 합리적 경영과 경영의 다각화를 꾀할 수밖에 없으며, 낙농산업의 존속을 위해서는 목장을 이어나갈 후계낙농인들이 분뇨처리나



이용욱 청년분과위원장은 서로간의 끊임없는 교류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청년분과위원회가 전국적으로 보다 활성화하여 낙농산업의 기반이 유지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포유육성, 조사료생산에 구속되지 않고 번식과 착유중심의 작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지금이라도 후계낙농인들의 경영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청년분과위의 목소리가 낙농현장의 참모습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낙농산업의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는 것이 이번 워크숍의 소득이었다. 이날 농식품부와 대화의 위해 마련된 자리에는 농식품부 우만수 사무관이 나서 원유가격연동제, 무허가축사를 비롯한 낙농환경 문제,

퀴터문제, 육우문제, 후계낙농인들의 목장승계 문제 등 쏟아지는 낙농산업의 현안에 대한 후계낙농인들의 고민담긴 목소리들을 청취하고 진지한 의견을 나눴다.

손정렬 협회장은 “청년분과위원들의 목소리가 곧 우리 낙농이 처한 진짜 현장의 목소리임에 공감한다”며, “그에 따른 신중한 검토와 실질적 대책마련을 위해 협회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욱 청년분과위원장은 “현장에서 어려움을 마주하게 되는 후계낙농인들마다 절대 고독감에 좌절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청년분과위원회 활동이나 주변 후계낙농인과의 교류를 통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어려움을 알리고 동료 낙농인들과 나눔으로서 위안을 구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우리가 낙농산업을 이끌어 갈 주역

내일은 우리가 별이다.

워크숍이 개최한 증평군 율리휴양촌은 인근에 좌구산 천문대가 위치할 정도로 별이 잘 보이는 곳이다. 첫날 공식일정이 끝난 후에도 별이 총총히 떠있는 밤하늘 아래, 젊은 낙농인들의 낙농산업의 미래에 대한 고민과 청년낙농인의 역할에 대한 대화

는 별빛이 다하도록 끝날 줄을 몰랐다.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걱정 속에 매일매일 일에만 파묻혀 지내온 청년농업인들 모두가 하나 되는 시간이었다.

이튿날 참가자 일동은 총평을 통해 “금번 청년분과위 워크숍이 단순 야유회 성격을 넘어 매우 의미있는 행사였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청년분과위 임원들은 선배농업인이 후배농업인에게 조금이라도 편히 낙농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할 방향 제시하는 역할은 매우 중요하므로 앞으로도 이 같은 기회를 통해서 서로간에 밝고 즐거운 낙농을 향한 기쁨마련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참가자 모두 “늘 배우는



워크숍 마지막 날 총평의 모습. 청년농업인들만의 공감대를 확인할 뿐 아니라, 미래에 대한 도전의식을 다지는 좋은 기회였다고 평가하였다.

자세로 임하여 낙농산업의 미래를 이끌자”고 다짐하며 다음 만남을 기약하였다. ☺

〈취재 : 교육홍보부〉

